



미 증시, 숨고르기 장세 진입 하며 소폭 하락

미국 증시 리뷰

15 일 (월) 미국 증시는 11 월 뉴욕 제조업 지표 개선, 공급난 완화 기대감에도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부담 속 차익실현 압력으로 소폭 하락 마감(다우 -0.04%, S&P500 0.00%, 나스닥 -0.04%, 러셀 2000 -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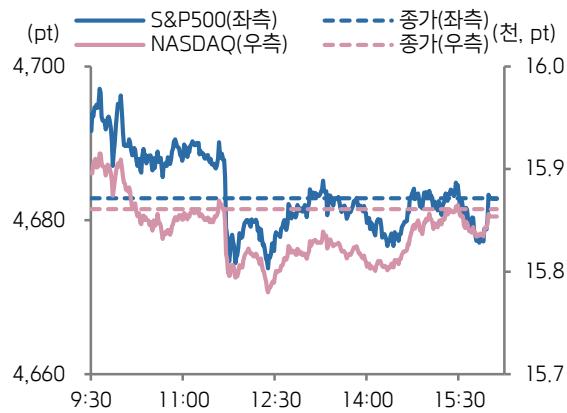
S&P500 지수는 장 초반 경제지표 개선세에 힘입어 0.2% 상승 출발. 중국의 소매판매 지표 서프라이즈에 이어 미국 개장 전 발표된 11 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30.9pt(예상 21.6pt, 전월 19.8pt)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 장 마감 후 예정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과 인프라 부양책 서명식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이었음.

하지만 장중 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여파로 하락 전환. 오전 뉴욕 연은 총재 더들리와 리치몬드 연은 총재 래커가 각각 블룸버그 인터뷰들을 통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선 기준금리를 3.0%까지 인상해야할 수 있다고 발언. 추가적으로 테이퍼링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이에 연준의 조기 긴축에 대한 긴장감이 확대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됨.

업종별로 유트리티(+1.3%), 에너지(+0.8%), 필수소비재(+0.5%) 등이 상승한 반면, 헬스케어(-0.6%), 소재(-0.5%), IT(-0.1%)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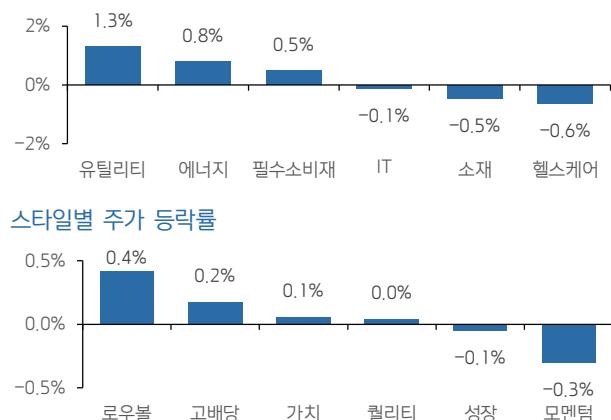
종목별로는 보잉(+5.5%) CEO 가 전일 생산차질로 배달이 중단되었던 787 드림라이너 모델의 곧 재개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주가 급등. 테슬라(-1.9%)는 지속적인 머스크의 지분 매각 관련 뉴스플로우에 의해 하락. 지난 한주 동안 머스크는 총 69 억 달러 어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짐. 장전 실적을 발표한 타이슨푸즈(+3.6%)는 EPS 2.3 달러(예상 2.03 달러)로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

S&P500 & NASDAQ 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지수	가격	변화	외환시장	
				지수	가격
S&P500		4,682.80	+0%	USD/KRW	1,178.15
NASDAQ		15,853.85	-0.04%	달러 지수	95.55
다우		36,087.45	-0.04%	EUR/USD	1.14
VIX		16.59	+1.84%	USD/CNH	6.38
러셀 2000		2,400.93	-0.45%	USD/JPY	114.14
필라. 반도체		3,793.75	-0.02%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779.68	+0.12%	국고채 3년	1.912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295
	Eurostoxx50	4,386.19	+0.36%	미국 국채 2년	0.516
MSCI 전세계 지수		756.83	+0.64%	미국 국채 10년	1.620
MSCI DM 지수		3,223.82	+0.68%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85.48	+0.32%	WTI	80.87
MSCI 한국 ETF		79.86	+0.18%	금	186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3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4.6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오전 종 결과 발표 예정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2. 전거래일 동반 급등세를 보인 제약 및 바이오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
3. 최근 변동성이 급증한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심리 호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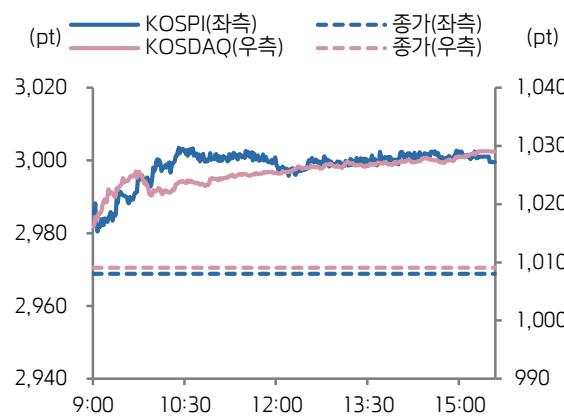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 10 일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쇼크로 공급난 우려가 재차 증폭되기도 했으나, 시장에서는 지속성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인플레 쇼크를 소화하고 있는 모습. 15 일 발표된 11 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 호조세(30.9, 예상 2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규주문(24.3→28.8)은 개선됐으며 배송시간(38.0→32.2)이 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 현지 외신에서도 적체 현상이 심각했던 LA 등 서부 항만 내 컨테이너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는 등 공급난의 우려와 불안은 정점에 달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그러나 국채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가 출현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아직까지 채권과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인플레 쇼크가 유발한 연준의 긴축 우려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국 증시는 레벨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채권,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주식시장에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다만, 금일 발표 예정인 소매판매,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일 시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제한된 수준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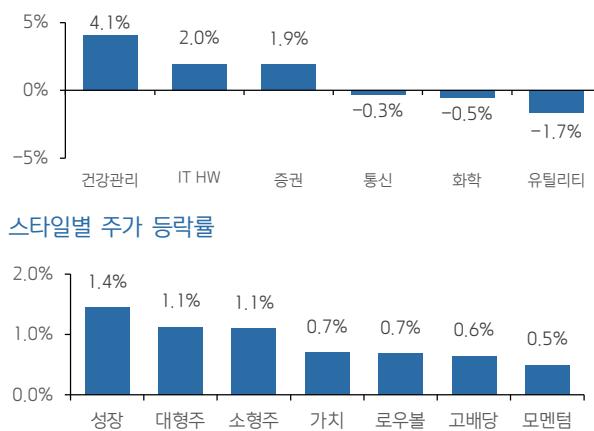
공급난 완화 기대감이 선반영됨에 따라, 2 거래일 연속 1%대 강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는 대외 이벤트 대기심리 속 단기 차익실현 물량을 소화하면서 성장 및 대형주를 중심으로 숨고르기 장세를 보일 전망. 장중에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회담의 주요 논의 사안은 외교, 인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증시 민감도가 높은 무역 문제는 기존 무역 합의 이행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판단. 한편, 장 마감 후 바이든 대통령의 1 조달러 인프라투자 서명 전해진 상황. 물론 지난주부터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프라투자 집행 현실화 기대감은 금일 증시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